

# 기업 유치 · 미래 신산업 육성 ‘결실’

지난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달 57.0%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60.5%를 기록,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56.1%, 3위는 김동연 경기지사로 54.8%, 4위는 이철우 경북지사로 52.6%, 5위는 김태흠 충남지사로 50.6% 순으로 집계됐다.

김관영 지사의 이번 평가는 민선 8기에 12조8,000억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이뤄내며, 일자리 창출과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의 성과를 낸 점이 도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는 평가다.

도민들은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김 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 ▲ 김 지사가 걸어온 길

1969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출신인 김관영 지사는, 어렸을때 가난하고 못살던 농촌에서 살며, 농사일을 도와야 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번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부에 전념했다고 한다. 농사일보다 공부가 좋아서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용화초등학교와 회현중학교를 거쳐 군산제일고에 다니면서도 3년 내내 새마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위로 4명의 형들은 모두 지방에서 학교에 다녔지만, 김 지사는 1987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서울로 대학에 다닐 수 있었지만 어려운 가정형

편으로 인하여 장학금으로 겨우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기에 도서관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밤에는 짬을 내어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기에 김 지사의 6형제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진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하다.

### 도지사 당선 후 ‘전북경제 활성화’ 목표로 뛰어 지난 2년간 총 12조8394억원 투자 이끌어내 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성과 도 “우연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 통해 이뤄진 것”

김 지사는 경영학과 2학년 때 그 바깥 의중에서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전국 최연소 회계사 합격의 영예를 누렸고, 공부를 계속해 1992년 대학 졸업 직후에는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공무원을 제대로 하려던 법을 잘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계속해 군에서 중위로 예편한 직후인 1999

년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 고시 3관왕의 타이틀을 거머쥐어 가히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나의 시험에 합격하기도 힘든데 3개나 연속으로 합격했으니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예산업무를 담당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았다. 그러다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되고자 결심하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자신의 고향인 군산에서 출마해 당선,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20대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의원이 되었으며, 박근혜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청구인 측 위원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해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2년 7월 1일부터 민선 8기 전북지사에 당선되었는데, 이때 최연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최고의 득표율인 82.11%의 지지를 얻어 약관의 나이에 당선됐다. 도지사 당선 후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나며, ‘낙후된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 리얼미터 평가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평가에서 영예의 1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지난 2년간(6월 기준) 130건, 총 12조8,394억원, 고용인원 1만3,695명의 투자를 끌어낸 것으로 집계되는 등 활발한 도정을 펼쳤으며, 오는 10월 22~24일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불철주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직원들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는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막연히 기다리다가 된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헤엄쳐오기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각오와 함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앞으로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 전북 현안 관련 김관영 지사 일문일답

## 전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해... 자부심 갖고 미래로 향한 길 열 것

Q. 취임 후,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으로 전북의 산업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생명과 문화, 탄소 등 기존 주력산업들의 지평은 혁신을 통해 그 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등 새로운 프론티어 산업으로 산업지형을 전환하는 일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래를 준비하며, 이미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자원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미 전주와 익산, 정읍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기반과 엄청난 자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희망의 씨앗들을 제대로 엮고 조합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능성과 확신이 저의 프레젠테이션에 담겨있었고, 심사위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사문화에서도 전북은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양대노총(민주노총 산하 전북 금속노조, 한국노총 산하 전북 금속노련)과 사용자 단체, 전북지치도가 함께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전북은 강하고 웅골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 갈 것입니다.

터리 시장 변화, 미국 IRA 중국 자본 25% 축소 등 투자협약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타개책은?  
- 민선 8기에만 12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12조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전북을 향한 투자 붐(Boom)의 중심에는 이차전지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통바이와 지이엠, IS 등은 각각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입니다. 올해도 성장률이 16%대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글로벌시장 규모만 936조원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내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동향과 미 IRA법, 미 대선 결과 등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하며 투자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미국의 정책 동향, 국제경제 정세의 지형 등을 분석하고, 기업들과도 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 그리고 지난 5월 중국 선전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과도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과의 협연 관계도 단단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이차전지 신규 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바이오 등 새 프론티어 산업으로 산업지형 전환 이뤄져 완주·전주 상생협력 통합 여건 만드는 데 노력 세계한인비즈니스 축제 될 수 있도록 준비 중  
무한 엔지니어들이 전국 중소기업에서 6~8주 정도 멘토 활동을 하면서 1년에 300개의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북은 1년에 약 1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성은 59% 향상과 불량률 56% 정도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좀 더 많은 도내 기업이 누렸으면 하는 공감대가 참여 기업들과 도(道) 사이에 형성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20년 이상 제조혁신 역량을 지닌 전문 멘토 30명을 모셔왔고, 스마트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도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이상 제조혁신 역량을 지닌 전문 멘토 30명을 모셔왔고, 스마트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도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이상 제조혁신 역량을 지닌 전문 멘토 30명을 모셔왔고, 스마트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도 문을 열었습니다.

열 것입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이 1만여 개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혁신의 기회를 누리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선순환의 사계를 만들겠습니다.  
Q.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화두입니다. 도의 입장?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멸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입니다.  
관할권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3개 시·군의 접점을 찾아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개발 실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이익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번지거나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통합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그간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통합 여건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 온 이유이고, 이를 통해 통합 열의가 완주에서부터 발휘되기를 기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완주군의 민간단체에서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한 후 도에 지난 12일 도착하였으며, 며칠 후 양 지역의 객관적 의견을 듣고 수렴해 도지사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3·5월 주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 3천여 국내외 한인 경제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회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기점으로 주관 기관인 재외동포청, 전주시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300개 부스 규모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될 기업전시관은 실제 전시장과 다를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최식장인 삼성문화회관과 오·만찬이 열릴 전북대 실내체육관의 시설 정비에도 나섰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표는 결국 기업활동과 전북 홍보에 있습니다. 식품과 탄소, ICT,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북 대표 산업별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을 재외동포청을 통해 한인 경제인들에게 소개하는 일도 준비 중입니다.  
경제와 산업, 문화 관련 행사를 동시 개최해서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인 지니포럼과 2024 일자리 페스티벌, 스타트업 전북특별자치도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축제 기간과 전후로 배치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 참가자와 해외 한인 경제단체를 위한 관광 투어프로그램과 한류 문화의 원류인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낙후된 전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약세, 배